

## 비철 스크랩, 일본에서 수입 급증

- 일본에서 구리와 납 등 비철 스크랩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, 향후에도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따라서 일본 외의 다른 지역으로 비철 스크랩 조달처를 다양화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

### □ 비철 스크랩 수입 증가 원인

- 한국에서 구리, 납 등 비철 스크랩의 수입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닛케이신문은 가전업계를 중심으로 비철 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  - 일본의 대형가전 메이커가 경영이 부진하여 스크랩의 수요가 둔화된 반면, 한국과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 가격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임
  - 한국이나 중국에서 거래요청이 많아,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 필요한 스크랩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함
- 5월까지 한국으로 수출되는 비철 스크랩 물량은 동북대지진 이전의 1~5월 비교하여 약 40% 증가
  - 동 관련 스크랩의 1~5월기 한국으로 수출은 3858톤으로 크게 증가했음
  - 특히 자동차 폐배터리(축전지)의 스크랩 수출이 증가
  - \*한국의 무역통계에 의하면, 6월 일본으로부터 폐배터리 수입량은 작년 동월대비 72% 증가한 9178톤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
  - \*일본에서의 폐배터리의 월간발생량은 약 2만 톤이기 때문에 50% 정도를 한국에서 수입

-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케이블선 등 전선류의 수입이 많고 동 성분이 50%정도인 품질이 낮은 동 스크랩이 주류

\*중국정부도 저렴한 스크랩 활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, 동이 차지하는 스크랩 비율을 15년까지 현재 30%에서 40%까지 늘릴 방침

## □ 일본기업의 움직임

- 일본기업들은 스크랩의 해외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리, 銅, 아연 등 비철 스크랩의 수출을 확대

-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銅관련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음

\*오사카에 있는 비철 스크랩상사인 하시모토알미늄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黃銅 스크랩을 한국에 월 50톤 수출

\*黃銅 스크랩은 전자부품의 재생원료로 사용

- 스크랩의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일본기업들이 국내에서 스크랩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

-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보다 비싼 가격으로 스크랩을 구입해 주기 때문에, 수출은 늘고 있으나, 일본내 폐배터리 스크랩이 부족하여 제련사업이 정체되는 사례도 나타나기 시작

\*한국기업이 일본에서 조달하는 스크랩가격은 1킬로 70엔 이상인 반면, 일본기업은 50엔대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

- 미쓰이금속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아연의 약 60%를 폐배터리 스크랩을 활용하고 있으나, 이런 추세로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일본기업의 가동률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됨

## □ 시사점

- 일본경제의 정체와 인구감소 영향으로 일본 내수시장의 전망은

밝지 않은 반면, 우리나라의 가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, 일본으로부터의 비철 스크랩의 수입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

- 일본은 비철 스크랩의 수출확대로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금속관련 기업들이 조직재편 등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
- 일본정부는 일본국내의 스크랩 부족현상이 악화되고 있어 비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
- 따라서 일본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스크랩 조달처를 다양화하는 등 안정적 조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

#### 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7.27). 「非鉄スクラップ、中韓へ輸出急増」